

尹 버티기에 '공수래 공수처'...내란 수사 난맥상

체포 불발되자 영장집행 경찰에 떠넘기려다 하루 만에 철회 경찰 "2차 집행엔尹 체포 적극 시도...특공대 투입 등 검토" "최상목 대행 협조 공문 회신 없어"...특검 재의결 목소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만료일인 6일에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대한민국 법 질서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경찰에 일임하기로 했다가 경찰의 반발로 하루 만에 공조수사본부(공조본) 체제하에서 진행하기로 입장을 정리하고 영장을 재청구하는 등 큰 혼선을 빚었다. 김·경의 엿박자 행보와 '윤 대통령의 버티기' 탓에 영장 집행 여부를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체포해야 할 윤 대통령 대신 경호처 등 일부 관련자만 소환하고 있는 사법부에 대한 실망도 커지면서 국회가 추진하는 '내란 특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관련기사 4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은 6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공조본 체제하에서 양 기관이 협의해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공조본에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공수처의 역할은 영장을 제시하고, 피의자실 요지나 체포 이유, 권리를 고지한 뒤 신병을 인수하는 것"이라며 "그 정도 역할은 경찰에 영장 집행 일임을 통해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차장은 "지난 3일 체포영장 1차 집행에 실패한 이후 경찰 국수본과 2차 집행 시기와 방식, 협조 체계 등에 관한 실무 논의를 해왔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도 경호처의 영장 집행 협조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 답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오동은 공수처장도 최 권한대행과 소통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공문에 법률적 논란이 있다며 사실상 집행 거부 의사를 밝혔고, 양 기관은 공조본 체제에서 영장을 집행하기로 정리한 것이다. 공수처는 다시 공지를 통해 "본건과 같이 중대한 사건의 수사에 작은 논란의 소지도 남기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의견을 같이한다"며 "향후 공조수사본부 체제에서 집행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영장 집행 일임과 관련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을 경찰에 이첩하는 것은 아니며 윤 대통령이 체포될 경우 공수처 검사실에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조본은 서부지법에 윤 체포영장 기한 영장을 위한 영장을 재청구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2차 체포영장 집행 때는 윤 대통령 체포를 적극적으로 시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경호처 직원들이 재차 물리적으로 집행을 저지할 경우 이들을 체포하는 방안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차 체포영장 집행 때 경찰 특공대를 투입할 가능성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여지를 뒀다. 경찰은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 형사 기동대나 경찰특공대 파견을 공수처와 논의했으나 최종적으로 투입하지 않았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민주노총 등 진보단체 회원들이 텐트에서 윤 대통령 체포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안공항 인근에 제주항공 희생자 추모공원 조성

전남도 참사 후속대책 발표

무안공항 안전 시설 확충도 추진

제주항공 참사의 아픔을 기억할 추모 공간이 무안국제공항 인근에 조성된다. 또 공항의 조속한 정상 운영 및 운항 안전성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시설 확충 방안도 마련한다. 희생자 및 유가족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된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6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참사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우선, 오는 18일 무안공항에서 합동 위령제를 열고 무안공항, 무안스포츠파크, 전남도청 등 전남지역 분향소를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김 지사는 특히 460억원을 투입, 무안공항 인근에 7만㎡ 규모의 추모공원을 조성해 아픔을 기억하

고 치유로 나아가는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추모공원은 추모탑, 추모홀, 방문객 센터를 비롯해 유가족 위로를 위한 숲과 정원으로 꾸며진다.

공원 조성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특별법에 지원 근거도 마련하고 국비 지원을 건의하는 한편, 일부는 지방비로 충당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무안공항의 운항 안전성을 업그레이드하는 데도 총력을 쏟는다.

전남도는 무안공항에 최첨단 조류감사·퇴치 시스템 도입을 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대형기종 이착륙이 가능한 국제공항 수준의 활주로 건설을 정부에 촉구할 계획이다. 서남권 국제공항 위상에 걸맞은 안전 운항 시스템과 시설 개선을 정부가 직접 추진해야 조속한 정상 운영이 가능하다는 게 전남도 입장이다.

김 지사는 또 국가 주도의 범정부 협의체를 구

성해 항공사 손실 보조금 등 행정적 방안을 모색하고 거점 항공사를 유치해 안정적인 기본 노선 체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국토부의 지원을 요청하기로 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유가족 입장에서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항공 안전 대책을 마련, 무안공항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전남 9일까지 최대 20cm 눈...영광 대설 예비 특보

기온도 뚝...9·10일 추위 절정

7일 밤부터 8일 오전 사이 광주와 전남 북부에 시간당 1~3cm, 8일 밤부터 9일 오후 사이 3~5cm 강하고 많은 눈이 집중될 것으로 관측됐다.

기상청은 대기 하층에서 차가운 대륙고기압이 확장하고 상층에서 주기적으로 기압골이 통과함에 따라 이번 눈은 강약과 소강상태를 반복하며 장기간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눈은 10일 오전까지 이어지겠다.

기온도 6일보다 3~5도 가량 떨어져 7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5~1도, 8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4~4도에 분포해 급격히 추워지겠다.

기상청 관계자는 "9·10일 사이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추운 추위의 절정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71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5]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Sulwhasoo
THE ULTIMATE S CREAM
NEW 설화수 진설크림